

여순사건 다룬 영화 '동백' 상반기 개봉

윤복영 감독 메가폰...여수 등 동부권 일대 촬영
한국 현대사 아픔 담아내...진정한 화해 메시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인 1948년 '여순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동백'이 여수 등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촬영돼 올 상반기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획·제작사인 ㈜해오름 ENT와 여수시에 따르면 해오름 ENT는 늦어도 오는 6월 개봉을 예정으로 극장판 영화 '동백'을 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준비 작업을

들어간 현재 시나리오는 완료됐다. 주요 배우에 대한 캐스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윤복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윤광희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다. 예상되는 총 제작비는 30억원 안팎이다. 윤 감독은 영화 '군세아라 금순아', '야수', '연리지', '연가시', '판도라' 등에서 조감독으로 이름을 알렸다. 영화 '동백'은 여순사건을 정면으로 다

루지 않고 이를 배경으로 한국 현대사의 '한 가족'이 겪는 아픔을 그릴 예정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한 그릇의 국밥을 줬고 빨갱이로 낙인찍히는 등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불구가 되는 한 가족의 아픔이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화는 결국 세대를 건너온 악연의 대물림 속에서 진정한 화해를 꿈꾼다. 해오름 ENT 신준영 대표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여순사건, 이삼만 정권이 저지른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는 죄인공노할 만행, 손가락질 하나 만으로 친 없는 양민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빼앗기던 비극을 바탕 그림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와 순천지역의 여순사건 유족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며 "이들의 바람을 재조명해 영화 곳곳에 스며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화 '동백'은 서울 광화문 일원, 여수와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다. 촬영이 끝나면 전남 동부권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열거나 국회에서 영화를 상영해 공감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보성군요트협회가 최근 다비치콘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보성군요트협회 첫발 뚫다

창립총회 개최...해양레저문화 활성화

보성군요트협회가 '바다를 즐겨라! 바람을 즐겨라!'를 슬로건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12일 보성군요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재무 전남도 체육회장 당선인, 최광주 보성군 체육회장 당선인,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또 김순석 보성군요트협회 창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순석 회장은 "보성은 높은 파도가 들끓지 않는 지리적 특성과 오염

되지 않은 천혜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며 "이들 바탕으로 보성이 요트 및 해양레저의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보성군요트협회 창립을 추진한 김순석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요트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갈 것이며, 2020년 도쿄올림픽 요트종목에서 메달을 거머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요트협회는 건전한 해양문화 조성과 레저요트의 확산, 해양안전 의식 고취 및 요트문화 창달, 요트 동호인 친선 도모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고흥 겨울 문화프로그램 다채
군립·작은도서관 등 연계 운영

고흥군은 12일 "겨울방학을 맞아 책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겨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두 달간 북아트·그림책과 함께하는 리딩푸드놀이, 신나는 업사이클링, 한자교실, 코딩교실, 토탈 공예 등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프로그램인 캘리그라피와 프랑스 자수 등 5개 프로그램을 개설해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책과 연계한 북아트, 리딩푸드놀이 등 신규 개설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고흥군은 겨울방학을 맞아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겨울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흥군 제공

"2020년 복지정책 종합계획 실행 원년"

고흥군 고령친화 도시 조성 등 본격화

고흥군이 올 해 지난해 수립한 복지정책 종합계획 추진에 속도를 낸다. 앞서 고흥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보건소 등 복지관련 부서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2022년까지 추진할 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세웠다. '건강한 군민, 행복한 고흥, 희망찬 미래'를 비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친화에 따른 고령친화 도시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평등 실현 등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또 여성·청소년 복지 수요에 따른 미래지향적 복지환경 조성, 지속적인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도 목표로 설정했다. 분야별로는 ▲여(女)·자(子)·가(家)행복한 건강가족도시 조성 ▲밝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자생력 강화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등 4개 전략, 12개 핵심과제, 7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고흥군은 2022년까지 국·도비 포함 총 1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12일 "올해는 지난해 수립한 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실행하는 원년이다"며 "2022년까지 모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목욕탕 준공, 고흥 특화형 건강복지타운 건립 등 복지 기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 올해 복지분야 예산은 1,36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87억원이 증가했다. 고흥군은 어르신 여가시설 환경 개선과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 추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순천시 발효산업센터 건립 본격 시동

순천시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승주읍 미생물센터 친환경농업 교육관에서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회의는 식품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교수와 업체 대표, 연구기관, 유통 및 기술 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됐고, 이날 회의에서는 센터 건립과 운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

순천시 관계자는 "발효산업센터는 순천지역과 남해안 권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의 개발 및 시제품 제조, 기능성 분석, 마케팅 지원, 영세 농가들의 장업을 지원한다"며 "건립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력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권 발효산업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1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구례 간문초 작품 전시회 '눈길'

구례 간문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8일부터 구례군청 NH농협은행 출장소 앞에서 '심진·마을 소풍 문집과 삽화 및 미술작품 50여점을 전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간문초는 '2019년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의 하나로 학교와 간면사무소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어왔다. 전남도 공모사업인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은 전남도와 구례군에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간문초는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심진·마을 소풍 운영 등 간문초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전시회는 15일까지 계속된다. 간문초 김시중 교장은 "전남도와 구례군에서 실시하는 작은학교사업 지원을 받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더 사람다운 구례다움 간문다움'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곡성 침실습지 복원사업 주민공청회

곡성군은 최근 오곡면 종합회관에서 '침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와 군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침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은 생태 교육·체험·관광의 거점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곡성군의 핵심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며 2019년 국비 7억원, 2020년 국비 21억원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논 의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침실습지를 보존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보성 동절기 난방유 나눔행사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사회복지협회의와 함께 동절기 주거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저소득 140가구에 난방유를 전달했다. 나눔 사업은 보성군 '하루 100원의 행복' 사업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용 계좌에 모인 기부금 4,200만 원을 사용해 나눔복지의 의미를 더했다. 임오모 주민복지과장은 "군민들이

모든 기부금이 소외된 군민에게 돌아가 더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루 100원의 행복'을 통해 더 따뜻한 보성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2011년 3월부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하루 100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구례 고로쇠 수액 채취·관리 교육

구례군은 최근 심진아트홀에서 관내 고로쇠 수액채취 임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채취와 관리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고로쇠 수액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구례 고로쇠의 명성 회복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임업인들은 교육을 통해 고로쇠 수액

의 철저한 위생관리 및 채취지 사후관리 중요성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고로쇠 수액채취 임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채취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무분별한 수액채취 근절과 수액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